

결손가족 중학생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의 비교

김수진*, 김명식**, 여숙현**
부여여자 중학교*, 전주대학교**

The Relation of Resil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chool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of Broken Family

Su-Jin Kim*, Myung-Shig Kim**, Suk-Hyun Yeo**
Buyeo Women's Middle School*, Jeon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손가정 중학생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검증해보고,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중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에 주는 영향을 비교 및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결손가정 중학생이 일반가정 중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과 낙관성 등의 긍정심리자본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결손가족 중학생이 일반가정 중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중학생 모두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 수준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넷째, 일반가정 중학생의 경우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결손가족 중학생의 경우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만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결손가정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과 낙관성 등의 긍정심리자본이 모두 긍정적 상관에 있지만, 여러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만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이 양상은 일반가정 중학생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결손가정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에서는 여러 가지 상담적 개입이 중요하지만, 특히 삶에 대한 희망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결손가정, 자아탄력성, 희망, 긍정심리, 학교적응

Abstract This study is to testify the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of normal and broken family and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iddle school students of broken family showed lower level in self-efficacy, hope, resilience and optimism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an students of normal family. Second, the middle school students of broken family also showed lower level in school adaptation than students of normal family. Thir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adaptation in both groups of them. Fourth, self-efficacy, hope and optimism positively influenced school adaptation in students of normal family, only hop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id it in students of broken family. It seemed that especially hop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broken family's students was very important and should be focused in planning and practicing interventions for them. The limitation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 Broken Family, Resilience, Hop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hool Adaptation

Received 2 August 2016, Revised 1 September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uk-Hyun Yeo(Jeonju University)
Email: sukhyun92@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및 물질과학 문명의 발달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등에 있어 많은 변화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 대중매체의 발달, 생활양식의 변화로 예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도시문제,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의 사회 문제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역할 변화와 사회 참여의 증가 등의 긍정적인 면도 부각되었지만, 이혼, 별거 및 미혼모가 증가와 결손가정의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1,2].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지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청소년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아동기와 다르게 자의식이 발달하고 특히 욕구좌절이나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반항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이른바 제2의 반항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3,4]. 청소년기는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가정 결손은 학교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학교부적응이란 학교생활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욕구불만이나 갈등이 심하여 이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이탈하려는 행위로서, 다양한 부적응 행동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학교부적응은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속에서 충분히 수용되거나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5,6]

결손가정이란 사전적으로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의 형태로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 정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의미한다[7].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2010년 29.2%로서 2005년 이혼율 21.6%보다 7.6% 증가하여 미혼이나 이혼에 따른 결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손가정의 증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불안, 우울 수치심등을 경험하게 하고, 자아형성과 인격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를 일으킨다[8,9]. 일반적으로 결손가정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역할갈등 및 사회화의 갈등, 심리적으로 동일시할 대상의 부재,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대인관계 결여, 비행과 이탈의 접근 용이성 등 많은 어려움과 부적응 양상을 보이기 쉽다. 특히 결손가정의 청소년은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렵고 부적응 및 이탈행동을 통해 약물남용, 가출, 학교폭력과 학교중퇴 등과 같은 학교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키는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결손으로 인한 낮은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그러나 모든 결손가정 청소년이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같은 결손가정청소년 중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는 청소년도 있다. 최근에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계깊은 심리적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 등의 긍정심리자본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똑같은 결손가정 청소년이라도 긍정심리자본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이 보다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 교사와 대인관계에서도 더 친밀한 관계를 보이며, 학교의 학업 분위기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학급활동과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다[12]. 희망(hope)은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는 동기부여, 목표 지향적 에너지를 포함하는 의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로 구성된다[15]. 희망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동기와 긍정정서가 높고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의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상황적 요구와 행동적인 가능성 사이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개인과 사회의 영역과 관련한 문제해결에서의 융통성 있는 능력을 말한다[17]. 보통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학교환경에 불안해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게 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18].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공통된 특징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동적이며,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잘 견뎌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 긍정적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감성과 협동성, 그리고 책임감이 높은 편이라

고 한다[19]. 낙관성(optimism)이 높은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에 비해 현재 행복감을 더 느끼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뛰어나며, 실패는 일시적이며 견뎌내고 극복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20]. 이러한 낙관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며, 특히 교우관계와 학습활동 적응과 즐거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결손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결손가족 청소년을 위한 상담적 개입이나 프로그램 개발시 어떤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하고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규명하고자 했다.

2. 이론적 배경

2.1 결손가정 청소년

보통의 일반가정은 결혼관계로 형성된 부부와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때로는 남편의 가족 혹은 부인의 가족을 포함한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초적인 교육의 장인 가정의 구조와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핵가족화, 이혼의 증가, 부모 기능의 상실, 유기 및 별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가정, 편부모가정, 등 결손가정이 늘고 있다[22]. 결손가정은 형태적 결손가정과 기능적 결손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태적 결손가정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거하지 않으며, 부모가 사망, 별거, 수형, 이혼 등의 이유로 한쪽이 반영구적으로 부재하는 가정을 말한다[23]. 과거 형태적 결손은 주로 배우자의 사망 또는 부모의 사망의 의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참여,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혼, 별거, 유기에 의한 결손가정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결손가정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사망은 아직 편부모 가정 모두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이혼, 유기, 별거 등에 의한 결손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24]. 둘째, 기능적 결손가정은 외형적으로는 양친이 모두 존재하지만 가정의 기본적인 기능인 생활과 심리적·신

체적 안정감 및 자녀의 교육이 보장되지 않고 결여된 가정을 말한다. 기능적 결손가정의 경우 부모의 불화나 갈등, 방임, 부도덕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과거의 결손 가정 발생원인은 부모의 사망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참여, 현대의학의 발달 등으로 이혼, 별거, 방임, 유기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25].

일반적으로 결손가정 청소년은 부모역할의 상실 및 사회화 갈등, 심리적 동일시 대상의 부재,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대인관계 결여, 비행과 이탈의 접근성 용이 등의 다양한 특징을 갖기 쉽다.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이 일반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기라는 자체만으로 과도기적이고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정의 결손으로 인한 불안과 혼란까지 가중되기 쉽기 때문이다[26]. 또한 결손가정 청소년은 정체감 확립을 주된 과업으로 이루어야 할 시기에 가정의 결손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게 된다[27].

2.2 긍정심리자본

Seligman(1998)은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는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직업이나 학업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고 하였다[28]. Luthans(2002)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에 관한 이론을 더 발전시켰는데,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탄력성(resilience), 낙관주의(optimism) 등의 4가지 개념들이 성취와 성공을 향한 개인의 긍정적인 인지상태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였으며, 4가지 구성개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 등의 긍정적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통합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이해될 때, 개별 변수들의 상승작용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부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29].

긍정심리자본 중의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효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신념을 의미한다[30]. 희망은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을 사용하는 것이다[15]. 자아탄력성은 현실과 변화를 수용하고 위험과 책임에 대처하고 건강한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능력으로서 현실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 긍정적 자기개념과 자신감, 의사소통과 문제해결기술, 충동과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들로 구성된다[31]. 낙관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상황 혹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기대는 경향을 말한다[28]. 최근에는 일반 기업체나 기관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준비도나 진로성숙이 더 높았으며, 학생상담시의 효과나 학교적응도 더 좋고, 스트레스가 우울에 주는 영향을 적절히 완충해주며, 정서발달과 적응수준도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32].

2.3 학교생활적응, 결손가족 청소년과 긍정심리자본

일반적으로 적응(adaptation)은 신체적, 사회적 환경과 조화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유기체의 활동 과정 및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인지적, 정의적, 도덕적 발달을 위한 학교 학습의 과정과 상황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33]. 윤여명(2003)은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연적, 내재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주장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이 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당면 문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지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과 가정에서의 적절한 교육,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관계와 존중 등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34].

최근에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심리자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과 낙관성으로 구성된다(Luthans, 2002). 자기효능감은 학급활동과 수업, 동료관

계 및 교사관계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업과 대인관계, 교사관계 등의 학교적응을 매우 잘 한다는 것이다[11,35]. 희망은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는 동기부여, 목표 지향적 에너지를 포함하는 의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가 되는 심리적 특성으로서,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동기와 긍정정서가 증진되기 쉽고 학교생활적응도 잘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5,16,17].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욕구좌절에 대한 내인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8,19,20]. 낙관성 역시 실패와 두려움에 대한 내인성을 높여주며, 교우관계와 학업에 대한 더 많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므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21,23].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의 청소년은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렵고 부적응 및 이탈행동을 많이 하므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10].

정귀화(2002)은 일반가정 학생들이 결손가정의 학생들보다 학교생활 적응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했다. 그는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면서 오는 사랑의 결핍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11]. 조수연(2012)은 결손가정에 비해 일반가정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데, 그 이유는 결손가정 학생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 및 관여도가 낮거나 결여되기 때문에 일반가정 학생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결손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과 낙관성이 증대될 때 학교생활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연구와 보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결손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둘째, 결손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결손가족 청소년을 위한 상담적 개입이나 프로그램 개발시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과 활용성, 그리고 어떤 긍정심리자

본이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전북 10개 중학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측치 131부를 제외한 669명 중 결손가정 170명과 일반가정 170명, 총 340명을 선별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5개의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설문평가지에 대한 설명 한 뒤 검사를 진행하였다.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 Wee클래스의 전문상담교사와 지역사회전문가와 전화 및 면담을 통해 설문평가지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 전달하였고 검사가 완료된 후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일반가정과 결손가정의 성별과 학년비율은 비슷하였고, 부모의 경우 결손가정은 어머니만 있는 가족(45.3%)과 아버지만 있는 가족(21.8%)이 대부분이었다

($\chi^2=340.00, p<.01$). 일반가정의 청소년이 결손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상태($\chi^2=55.22, p<.01$), 학교성적($\chi^2=39.18, p<.01$)과 건강상태($\chi^2=8.02, p<.05$) 등이 모두 좋은 편이었다.

3.2 측정도구

3.1.1 긍정심리자본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심리자본척도는 Luthans(2006)이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정은영(2013)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29]. 응답자의 기질이 아닌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하위척도는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 척도이며 총 2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심리자본 문항에서 13, 20, 23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심리자본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ubjects

category	N(%)			χ^2
	normal	broken	total	
sex	male	70(41.2)	70(41.2)	.00
	female	100(58.8)	100(58.8)	
year	second	96(56.5)	96(56.5)	.00
	third	74(43.5)	74(43.5)	
family	parent	170(100)	0(0)	340.00**
	mother only	0(0)	77(45.3)	
	father only	0(0)	37(21.8)	
	stepmother	0(0)	9(5.3)	
	stepfather	0(0)	11(6.5)	
no parent	0(0)	15(8.8)	15(4.4)	
economic state	high	30(17.6)	7(4.1)	55.22**
	middle	133(78.2)	107(62.9)	
	low	7(4.1)	56(32.9)	
grade	high	31(18.2)	11(6.5)	39.18**
	middle	118(69.4)	89(52.7)	
	low	21(12.4)	69(40.8)	
health state	good	99(58.2)	80(47.3)	8.02*
	middle	67(39.4)	75(44.4)	
	bad	4(2.4)	14(8.3)	
parental job	both	136(80.5)	87(51.8)	52.37**
	no both	1(0.6)	10(6.0)	
	father only	31(18.3)	34(20.2)	
	mother only	1(0.6)	37(22.0)	

3.1.2 학교생활적응척도

학교생활적응척도는 김용래(2000)의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42]. 이 척도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규칙적응 5개 하위영역 총 41개 문항으로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이었다.

3.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실시된 설문지 총 800부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설문지 669부 중 무작위로 일반가정 중학생 170명과 결손가정 중학생 170명, 총 340명을 추출하여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결손가정 중학생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빈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 두 집단 간의 적응수준,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탄력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긍정심리자본과 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주는 영향이나 예측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방법: 단계적)을 실시했다.

4. 연구결과

4.1 일반가정과 정상가정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간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척도와 전체 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반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족 청소년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하위척도와 긍정심리자본(전체)($t=3.93, p<.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또한 일반가정 청소년은 결손가족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척도 중 학교환경($t=2.64, p<.01$), 학교수업($t=3.18, p<.01$), 학교생활($t=2.73, p<.01$)과 학교생활적응(전체)($t=2.42,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Table 2> difference between 2 groups in P.P.C

group	normal (n=170)	broken (n=170)	total (n=340)	t
positive p.c.				
self efficacy	24.77 (5.04)	22.57 (5.31)	23.67 (5.28)	3.91**
hope	24.95 (4.79)	22.87 (5.69)	23.91 (5.35)	3.64**
resilience	23.31 (3.98)	22.27 (4.29)	22.79 (4.17)	2.30*
optimism	23.91 (3.55)	22.44 (4.37)	23.17 (4.05)	3.38**
school adjustment	96.94 (14.79)	90.16 (16.88)	93.55 (16.21)	3.93**

* $p<.05$ ** $p<.01$

<Table 3> difference between 2 groups in School Adjust.

group	normal (n=170)	broken (n=170)	total (n=340)	t
school adjustment				
environment	26.98 (7.10)	24.78 (8.20)	25.88 (7.74)	2.64**
teacher	26.97 (7.95)	26.58 (8.19)	26.77 (8.06)	.43
lesson	23.07 (6.72)	20.76 (6.60)	21.91 (6.75)	3.18**
classmate	25.81 (5.69)	24.67 (6.32)	25.24 (6.03)	1.74
life	23.00 (4.99)	21.50 (5.12)	22.25 (5.11)	2.73**
school adjustment	125.84 (27.84)	118.31 (29.29)	122.07 (28.78)	2.42*

* $p<.05$ ** $p<.01$

4.2 전체 집단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 전체 340명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r=.79, p<.01$), 희망($r=.65, p<.01$), 자아탄력성($r=.51, p<.01$), 낙관성($r=.54, p<.01$)은 학교생활적응(전체)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4.3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주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척도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생활적응(전체)

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방법: 단계적)을 전체집단, 일반가정 집단, 결손가정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집단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beta=.41, p<.01$), 낙관성($\beta=.11, p<.05$)과 자기효능감($\beta=.15, p<.05$)이 학교생활적응(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Table 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2	3	4	5
self-efficacy	1				
hope	.79**	1			
resilience	.65**	.69**	1		
optimism	.51**	.55**	.61**	1	
school adjustment	.54**	.59**	.45**	.42**	1
M(SD)	23.67 (5.28)	23.91 (5.35)	22.79 (4.17)	23.17 (4.05)	93.55 (16.21)

* p<.05 ** p<.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P.P.C on School Adjust. (Total)

coefficient psychol. capital	B	SE	β	R ²	ΔR^2	t	F
	(constant)	30.72	7.54				
hope	2.23	.40	.41	.359	.359	5.56**	
optimism	.80	.37	.11	.370	.011	2.15*	68.01**
self-efficacy	.81	.39	.15	.378	.008	2.08*	

*p<.05 **p<.01

일반가정 집단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beta=.30, p<.01$), 희망($\beta=.26, p<.05$)과 낙관성($\beta=.14, p<.05$)이 학교생활적응(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Table 6>. 결손가정 집단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beta=.59, p<.01$)만이 학교생활적응(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Table 7>. 결국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 전체를 함께 고려할 때는 희망(35.9%), 낙관성(1.1%), 자기효능감(0.8%)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가정의 청소년은 자기효능감(34.4%), 희망(3.5%), 낙관성(1.5%)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 결손가족 청소년들은 희망(35.3%)만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일반가정 청소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일반가정 청소년은 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비교적 여유있고 개인적 자원이나 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반면, 결손가족 청소년은 개인적 자원이나 능력이전에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에 나가는 자세가 학교생활적응에 주요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P.P.C on School Adjust. (Normal)

coefficient psychol. capital	B	SE	β	R ²	ΔR^2	t	F
	(constant)	18.58	11.90				
self-efficacy	1.69	.55	.30	.344	.344	3.30**	36.39**
hope	1.51	.61	.26	.382	.038	2.46*	
optimism	1.14	.56	.14	.397	.015	2.03*	

*p<.05 **p<.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P.P.C on School Adjust. (Broken)

coefficient psychol. capital	B	SE	β	R ²	ΔR^2	t	F
	(constant)	48.41	7.51				
hope	3.05	.31	.59	.353	.353	9.57**	91.75**

*p<.05 **p<.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이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결손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차이점을 비교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 e, 일반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족 청소년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하위척도와 긍정심리자본(전체)가 모두 또한 일반가정 청소년은 결손가족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척도 중 학교환경, 학교수업, 학교생활과 학교생활적응(전체)가 모두 높았다. 둘째,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 전체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 모두 학교생활적응(전체)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에 주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전체집단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순으로 학교생활

적응(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일반가정 집단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 희망과 낙관성이 학교생활적응(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 결손가정 집단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만이 학교생활적응(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 참고문헌 번호 수정해야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일반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이나 학교생활적응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11,4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국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심리적 어려움과 결핍으로 인해 긍정적 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의 보인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긍정적 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지지된 것이다 [32,35,36,38,39].

일반가정의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으로 집단을 구별해서 긍정적 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일반가정의 청소년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순으로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결손가정의 청소년은 희망만이 학교적응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일반가정의 청소년은 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기효능감 같은 개인적 자원이나 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반면, 결손가족 청소년은 무엇보다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학교생활에 적응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일반가정의 청소년이 결손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물질적 자원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으므로 자기효능감, 낙관성 등의 개인적인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반면 결손가정의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심리사회적, 물질적 자원이 빈곤하므로 개인적인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만이 학교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 것 같다[30,31].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다른 긍정심리자본과 다르게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 좋아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불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18,19,20]. 아마도 선행연구에 비해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6문항으로 매우 적고, 자아탄력성이 함께 제시

된 긍정심리자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등과 상관성이 매우 높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본 연구는 최근 긍정심리학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 등의 긍정적 심리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그리고 그 양상이 일반가정의 청소년과 결손가정의 청소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결손가족 청소년이 일반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긍정적 심리특성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했고, 특히 결손가정의 청소년에 있어 긍정적 심리특성 중 희망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결손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나 개입방법을 개발할 때에, 희망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활용하고 증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에 참여한 340명의 연구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는 것은 좋으나, 그 측정도구의 문항이 24문항에 불과하고 그것도 단일 차원이 아니라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신뢰도와 타당도의 제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개발과 보완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셋째, 일반가정과 결손가정의 청소년을 구별 및 분류할 때에 주로 설문지상의 자기보고에 기초했다는 점이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면접원이나 평가원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나 타당도 문항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사례수가 140명으로 너무 적어, 더미변수 등을 활용한 다양한 통계 분석 등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피험자들을 확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가 한 부모 혹은 두 부모 사이에서 자란 차이보다 경제적인 상태, 학교성적, 건강상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하는 편상관(partial correlation) 등의 연구를 추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와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38,39,40,41] 현재와 같이 청소년과 청년

층 등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급감하는 상태에서, 결혼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심리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REFERENCES

- [1] Sang-Chul, Han, "Adolescents' Risk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 12, No. 5, pp. 99-116, 2006.
- [2] Yun-Hee, Kim, Gyeol-Ja, Cho, & Mi-Young, Cho, "The Study of Comparison Home Environmental Elements with Self-Conceptions &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1, pp. 96-114, 1986.
- [3] I-Jong, Kwon, *The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Seoul: Kyoyook, 2016.
- [4] Young-Suk, Yu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ing SmartPhone and Mental Health State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ed on Schools in EastInch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Master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2013.
- [5] Eun-Kyung, Kim, "Family Caregiver's Level of Burden and Health Status According to Home Care Client's Activities of Daily Living." Master dissertation,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2005.
- [6] Bueom-Jae, Lee, "The Study of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Maladjustment." Master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1991.
- [7]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08.
- [8]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eoul: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 [9] Byung-Gyu, Son,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 and Maladaptive Behavior." Master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2007.
- [10] Chn-O, Jang, "Effect of Family Functions on Adaptation of dolescents:with focus on application of psychology and school." Ph. D.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2013.
- [11] Sun-Il, Gyeong,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2006.
- [13] Jeon-In, Kim, "A Study of Self-Efficacy and School Aapt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 [14] Hyo-Hyun, Y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Master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2001.
- [15] C. R. Snyder,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nurturing hop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73, pp. 355-360, 1995.
- [16] Eun-Young, Jang,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Hope on Achievement Motivation, School Adjustment, Psychological Well-Being - An object of study :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04
- [17] J. Block, J., Block, & S. Keyes, "Longitudinally foretelling drug use in adolescence: Early childhood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precursors." *Child Development*, Vol. 59, pp. 339-355, 1988.
- [18] Ji-Yeon, Shin, "A Study on The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on Ego-resilience of Students in middle School." Master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4.
- [19] Eun-Hee,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IQ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97.
- [20] C. S. Carver, J. G. Gaines, "Optimism, pessimism, and postpartum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1, pp. 449-462, 1987.
- [21] Da-Jeong, Jeon,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Optimis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happines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 [22] Su-Ji, Moon, "A Study on needs of adolescents of

- broken family." Master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1996.
- [23] Ho-Yeon, Kim, "A Study on Personality traits of students from broken home and the ones from normal home." Master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995.
- [24] Mi-Ra, Lee, "Qualitative study about effect of broken family adolescent social support system on career-decision process." Master dissertation, Musan National University, 2005.
- [25] Hyoun-Yon, Kwon, "Development of At-risk Youth Rating Scales based on the Qualitative Research of Psychosocial Factors." Ph. D. dissert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010.
- [26] Suk-Hee, Kang, "A Study of healing communication for teenagers in broken families." Master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2012.
- [27] Byeong-Kyu, Son, "The Effect of self-esteem of adolescents in broken family on interpersonal relation and maladaptive behavior." Master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2007.
- [28] M. E. P. Seligman,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Pocket Books, 1989.
- [29] F. Luthans,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3, pp. 695 - 370, 2002.
- [30] A.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1986.
- [31] B. L. Fredrickson, B. L., & C. Branigan, C, "Positive emotions broaden the scope of attention and thought-action repertoires." Cognition and Emotion, Vol. 19, No. 3, pp. 313 - 332, 2005.
- [32] Ju-Yeon, Jun, "Influences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hich adolescents perceived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aster dissertation. Soonchunhyun University, 2014.
- [33] Young-Do, Park, "The Effect of parents' involvement and parenting attitudes which adolescents perceive on motivation to learn." Master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2005.
- [34] Yeo-Myung, Yun,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tudents' extracurricular education on mental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3.
- [35] Byung-Chan, Kim, "A Study on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5.
- [36] Sue-Yun, Cho, "Social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normal and broken family." Master dissertation. Kangnam University 2012.
- [37] Yong-Rae, Kim, "The Correlation Study of adolescents'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the juvenile delinquency." Master dissertation. Jeonju University 2000.
- [38] Myung-Shig, Kim, "A Psychological Consideration for Psychological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 555-562, 2015.
- [39] Y. J. Lee, "A Study on Parent-Children Relation Influences on Internet Excess Utility of Adolescent in Digital Peri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9, No. 6, pp. 103-111, 2011.
- [40] Yeob-Myeong Son, Byeong-Soo Jung, "Convergence Development of Video and E-learning System for Education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13-119, 2015.
- [41] Chun-Ok Jang, "A Study on Convergence Family Function and parameter validation fusion of youth protection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21-126, 2015.
- 김 수 진(Kim, Su Jin)
 · 2008년 2월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심리학사)
 · 2013년 2월 :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상담심리학 석사)
 · 2014년 2월 ~ 현재 : 부여여자 중학교 상담교사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 E-Mail : kcoup45@naver.com
- 김 명 식(Kim, Myung Shig)
 · 1987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사)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임상심리학 석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상
담심리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 사회심리, 물
질중독, 인터넷 중독
· E-Mail : klb2000@jj.ac.kr



여 숙 현(Yeo, Suk Hyun)



· 1990년 2월 : 전주대학교 음악교육
과(음악교육 학사)
· 2010년 8월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
학과(상담심리학 석사)
· 2014년 2월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
학과(상담심리학 박사 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마음편한상담
심리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청소년 정서관리, 진로상담
· E-Mail : sukhyun92@hanmail.net